

## Lenzing사의 신형 재생 셀룰로스 섬유

셀룰로스 섬유 제조업체인 Lenzing사는 면 폐기물로 제조한 텐셀 리오셀 섬유를 출시하여, 'circular economy solution(순환 경제 솔루션)'을 추진하고 있다. 차세대 리오셀 섬유는 재활용한 면 폐기물과 폐루프(closed-loop) 텐셀 제조공법을 결합시키는 것이다. Lenzing사는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소재가 포함된 셀룰로스 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하였다.

텐셀 섬유는 이미 99.7 %의 폐루프 순환에 기반한 친환경 생산 공정과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으로 EU 상(EU award)을 수상한 바 있다. 지속 가능한 산림에서 재활용 가능한 목재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섬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또다른 장점을 제공한다. 차세대 텐셀 섬유는 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텐셀 제조공법을 사용하여, 생태학적으로 가장 유용한 목재 기반의 섬유가 될 것이다.

면 폐기물을 텐셀 섬유로 재활용하는 것은 의류 산업에서 순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

♣ Melliand international(3/2016)